01 교회소식

소망으로 맞이하는 새해

지난 30년간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으로 전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한 우리 교회의 새해 4가지 기도제목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_ 영적인 사랑 시리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어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03 피플

"값없이 받은 사랑, 주를 위해"

주님 사랑에 감사해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의 삶에는 축복이 넘친다. 황금란 전도사, 정 드보라 사장, 송승철 형제를 만나본다.

04 간증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다

10년이 넘는 세월,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있는 대전만민교회 길태식 목사 간증.

만민뉴스

제562호 2012년 12월 3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2 성탄전야 축하공연 및 성탄 축하예배_ 인류 구원의 소망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예배가 지난 12월 25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주님의 사랑'(사 53:7)이라는 설교로 있었다(②). 전날인 24일 저녁에는 성탄 전야예배와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축하공연 '우리 주님'이 본당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①, ③~⑥).

영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2013년 4대 비전에 담겨

'만민'(萬民)이라는 우리 교회 이름 안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이 잘되게 하는 말씀인 성결의 오중복음을 허락하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권능을 허락하셨다. 또한 성도들을 급격한 영의 흐름 속에 영적 장수로 성장시키셨다. 영적 전쟁에 필요한 분야를 철저히 준비시키신 것이다.

잘 훈련된 군사들은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전술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또 상관의 명령에 오직 순종할 마음 자세로 군기가 잘 잡혀 있어야 한다. 더불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새해를 앞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다음과 같은 4대 비전을 허락하셨다.

첫째는 '마지막 때의 섭리'(딤전 2:4)이다.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권능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영적 장수를 필요로 하신다. 따라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중심으로 많은 영적 장수가 나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온 영'(히 10:22)이다. 하나님 권능을 전 세계 만민에게 온전히 펼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많은 사람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에 성도들은 믿음의 반석이나 영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영을 사모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셋째는 '빛을 발하는 성전'(시 37:6)이다. 이는 하나님 공의가 이 땅의 어둠을 밝히며 수많은 영혼을 모아들이고 변화시키는 참된 의미의 성전을 말한다. 만민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넷째는 '권능'(요 11:41~44)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자를 통해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이를 통한 재창조의 역사로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더 많은 성도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대망의 2013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하는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지난 12월 23일 주일 대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기도제목 중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섭리'를 설교했다. 28일 금요철야예배에 이어 30일 주일 대예배와 31일 송구영신예배에서는 나머지 기도제목을 차례대로 설교한다. 또한 12월 30일 저녁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되는 사무연회 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발표한다.

한편, 성도들은 송구영신예배 시 각자 준비한 3가지 기도제목을 기록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게 된다. 축복의 그릇을 넓힌 2012년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며, 준비된 그릇 안에 마음껏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2013년 새해를 기대한다.

2012-2013

송구영신예배

일시: 2012년 12월 31일 오후 11시
장소: 만민중앙교회

1부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교회 4가지 기도제목 중 '권능'(요 11:41~44)에 대해 설교한다.

2부 전 성도가 신년 개인 기도제목 3가지를 기록하고 축복기도를 받는다.

3부 교회 기도제목 '마지막 때의 섭리', '온 영', '빛을 발하는 성전', '권능'에 맞춰 예능위원회 공연을 한다.

GCN 방송과 인터넷 생중계

하나님의 사랑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6)

천지 만물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볼 때나 어떤 사람에게서 선한 마음이 드러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물며 모든 아름다움과 선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안에 이룬다면 그 행복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사랑은 고통을 녹이는 평안함이요, 어둠을 몰아내는 밝음과 희망이며,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입니다. 또한 슬픔을 물리치는 희락이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 고단하고 힘들 때 심신을 가볍게 해 주는 생명력의 원천이지요.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가장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 인간을 경작하며 참 자녀로 이끄시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신 뒤 에덴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곳은 신비하리만큼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갖가지 꽃과 나무들이 자라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뛰놀며 어디를 가든지 풍성한 열매가 가득했지요.

그리고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와라는 사랑스런 배필도 주셨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외롭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헤아려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와와 함께 최상의 환경 속에서 무수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 자녀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껏 사랑을 주셨지만 정작 그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자신들이 수고해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불행이나 죽음을 느껴 보지 못했기에 그 의미를 몰랐고, 미움을 겪어본 일이 없기에 사랑의 진정한 가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즉 상대성을 체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하셨지만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여기에는 인간 경작이라는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간 경작을 통해 눈물, 슬픔, 고통, 사망 등을 체험함으로 장차 천국에 이르러 자신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에덴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천국에서 세세토록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셨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천하 만물을 호령하던 아담이 권세를 잃으니 그 아래 있던 동식물까지도 저주를 받았지요. 풍요롭고 아름답던 이 땅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며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이지만 에덴동산과 전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창 3:21). 자녀의 장래를 위해 잠시 곁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과 달리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래 인류는 급속히 죄로 물들어 하나님과 멀어져갔습니다(롬 1:21~23).

2.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2:4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은 특정 시대,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 놓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 올 때마다 참으로 기뻐하시고 반갑게 맞으시지요.

이처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요.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으로써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의 보배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아무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삼 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로써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대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은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찾은 영혼들을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3.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사랑

하나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해 승천하신 후 우리 마음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이키도록 이끄십니다. 믿음이 적은 이에게 믿음을 더하고 소망이 없는 이에게는 천국 소망을 더해 주시지요. 어머니가 자녀를 섬세하게 양육하듯이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때에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고 천국까지 인도하시지요.

이러한 사랑을 깊이 깨우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강건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시지요. 이는 영계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과 응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사랑에 감사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질병이나 고통,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가슴 벅찼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요일 4:19).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여인이 젖먹이 자녀를 한시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 모두를 살피시고 천 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사 49:1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서 누릴 영광 중에 함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심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2012년 만민의 성도들은 자신의 성결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왔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며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 '2012년 감사패' 수상자, 그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본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황금란 전도사
(3대대 29교구 부교구장)

송승철 형제
(청년선교회 연합회장)

정 드보라 사장
(말레이시아 만민출판사)

"말씀 암송을 통해 받은 축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영혼 갈무리할 때 암송한 말씀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씀퀴즈대회 역대 은상 이상 수상자들이 참가한 왕중왕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황금란 전도사. 약 1천 구절의 말씀을 막힘없이 암기는 물론, 응용하는 뛰어난 실력으로 성도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말씀무장의 롤 모델이 된 그녀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다.

주일에도 일하는 유통업·요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초교파선교단체 '빛과소금선교회'의 창립 멤버인 그녀는 나름대로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으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사명자로서의 책임감이 더해갔다. 그러던 중 2000년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말씀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루 성경 한 구절 암송, 성경 한 장 이상 읽기'를 당부했다. 이에 기쁨으로 순종해 말씀무장에 힘쓴 결과, 역대 말씀퀴즈대회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을 두루 수상했다.

그녀는 말한다. "말씀을 암송할수록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긴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제부터 시작하신다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오늘도 젊은이들을 깨웁니다"

송승철 형제는 만민의 젊은이들에게 새바람을 일으킨 뉴리더이다. 그를 만난 젊은이마다 영적 충만함을 얻고 마지막 때 성령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된다.

그의 학창시절은 화려하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음주, 흡연, 친구들과의 힘겨루기가 어느새 그를 일진의 자리로 올려놓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늘 마음이 무겁던 그는 변화의 기회를 갖고자 해병대 입대를 결정했다. 입대를 앞두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찾아가 지난날을 회개하며 중보기도를 받았다. 주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시작한 군 생활이었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존심과 교만을 철저히 깨뜨려나갔다.

2009년 7월 전역 후 본격적으로 주님 마음을 닮기 위해 설교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비진리의 마음과 죄성을 버리기 위해 금식과 작정철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2010년 12월에는 대학선교회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젊은이들과 함께 불건전한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끊기, 말씀무장과 기도하기 등을 내건 '새 예루살렘 가기운동'을 주도했다. 이 운동은 곧 전 성도로 확산돼 영적 새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은 목자의 눈물과 사랑을 체험한 젊은이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다국어 저서를 통해 말레이시아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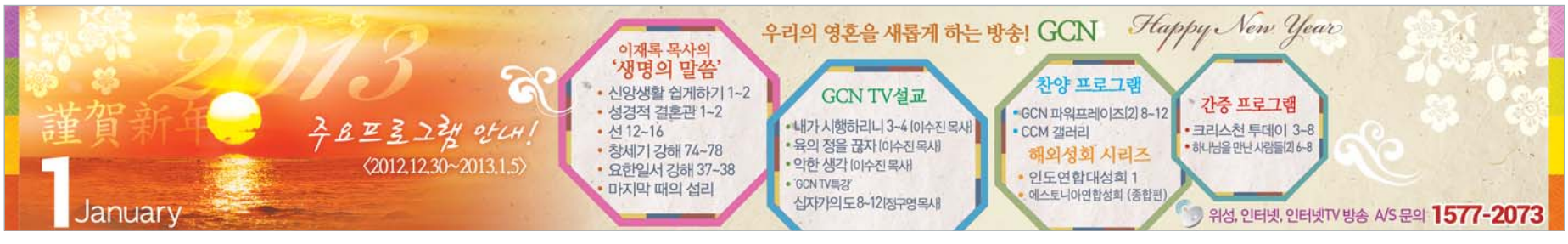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저서를 말레이시아 현지 언어와 중국어로 번역·출판하고 유통에 힘쓰며 성결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정 드보라 사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그녀는 고백한다.

"출판사를 설립하고 서점을 세우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2007년 8월, 지인으로부터 이재록 목사 저서 『천국』(상) 중국어판을 선물받은 그녀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 처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천국이 뚜렷이 다가왔고 천국 소망이 넘쳤다. 말레이시아와 동남아 화교권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된 그녀는 2010년 말 서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에 만민출판사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재록 목사 저서는 현재 쿠알라룸푸르의 신생 문화유한 공사, 시부 지역의 만민서점, 미리 지역의 벵까이 엔터프라이즈, 카노윗 지역의 브라이트 포에버 사를 통해 유통 중이며 지속적으로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녀는 올해 9월, 우리 교회 부목사인 이성칠 목사가 인도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화교 선교집회'를 적극 후원했으며, 12월 초에는 시부 지역에서 '성탄절 맞이 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앞으로도 이재록 목사 저서와 우리 교회 관련 DVD를 유통하고, 도서전과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개최해 활발히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길태식 목사 (대전만민교회 담임)

2012년 공로패를 수상한 길태식 목사(교육학·선교학 박사)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해외 선교에 힘써왔다.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릴까?' 하며 주님의 희생과 구원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내기 원하시는 당회장님의 심정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뜻을 이뤄가시는 당회장님을 닮고자 간절히 기도했지요.

이슬람공화국 파키스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풍성한 열매 맺기까지

2000년 10월, 이슬람공화국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강사로 연합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23년간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악한 영이 떠나는 등 수많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선포해 많은 회심과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 성회는 회교권 기독교 역사상 전무한 초교파 대규모 집회로 기록됐습니다.

저는 성회 현장을 목도하며 '당회장님께서 뿌려놓으신 이 복음의 씨앗들을 거둬야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지요. '어찌하면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심어줄까? 어찌하면 더 많은 영혼을 새 예루살렘

14차례 파키스탄을 방문해 카라치, 이슬라마바드, 아자드 캐슈미르 등 12개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스리랑카까지 그 지경을 넓혀 활발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순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입출국을 친히 인도하심에 감사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파키스탄 지역 선교를 친히 지키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파키스탄으로 가기 위해 태국 공항을 경유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반정부 시위로 인해 다음날인 27일 공항이 폐쇄되고 말았지요. 만일 하루만 늦었다면 파키스탄 선교에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2009년 4월에는 선교 일정을 마치고 새벽에 파키스탄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전 탈레반과의 전쟁이 선포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지요.

이처럼 파키스탄 선교는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가 끊이지 않아 매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파키스탄 선교 일정을 마치고 방콕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알카에다 지도자 빈 라덴의 사망으로 인해 테러 위협이 증폭됐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이미 파키스탄에서 1만 5천여 명이 모인 기독교 집회를 안전하게 치른 뒤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지요.

2012년에는 하이데라바드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카라치로 돌아온 그날 저녁, 하이데라바드에서는 파키스탄 주요 정당의 한 일꾼이 살해됨으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 전체가 교통이 마비되고 상점들이 문을 굳게 닫았지요. TV 뉴스에서는 40대가 넘는 버스가 불탔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루 전에만 일어났어도 하이데라바드 집회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400여 지·협력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현재 파키스탄에는 330여 개의 지·협력교회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에는 5차례 출장을 통해 7개 도시에서 선교하며 70여 개 교회가 지·협력교회로 가입했지요. 더불어 GCN 방송과 당회장님의 신앙 서적, 우르두어 만민뉴스, MIS(만민국제신학교) 강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가 담긴 GCN 방송 프로그램은 파키스탄 위성방송인 이삭 TV(사장 안와 파잘 목사)를 통해 하루 6차례(영어 3회, 우르두어 3회) 당회장님 설교 말씀과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공연 등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된 253개 케이블 방송을 통해 73개 도시에 전파되고 있으며, 카라치를 포함해 26개 주요 도시가 있는 신드 주에서는 주 전체가 케이블을 통해 성결 복음을 접하고 있지요. 이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도 매일 8시간 이상 GCN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자던 파키스탄 영혼들을 깨웠다면, 이제는 믿음을 성장시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이재록 목사 초청 2000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운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홍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